

포천사회 知識人 ④9

경북대학 신효영 교수

“일반사이트 ID와 비밀번호 인터넷뱅킹에 사용금지”

고등학생 대상 정보기술대회 개최 홈페이지 제작기술 평가

“요즘 세상에 인터넷 없이 산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개인의 신상정보가 누출되어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망에서 정보보호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해 왔다.”

경북대학 인터넷정보과 신효영(44·사진) 교수가 전공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신 교수는 파주시 교하면에서 태어나 교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광운대학교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하고 광운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경북대학 인터넷정보과에 부임하여 학생들에게 인터넷 정보보호, 웹 프로그래밍, 전자계산 일반 등의 과목을 강의하고 있고 현재 학과장으로 300여명의 학생들과 20여명의 교수들의 업무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신 교수는 전공에 대해 통신망이 발전하면서 인간에게 더 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해커가 통신망을 통해 불법으로 남의 시스템에 침입하여 변조 및 위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사태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요구에 부응해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신 교수가 연구하는 분야이다.

‘ATM 방식 초고속 통신망에서의 정보 보호 모델’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 교수는 최근 해커들의 움직임은 중국 등 외국의 해커가 우리나라를 경유해 미국의 어느 기관을 해킹 하는 사례가 있다. IT강국으로서의 체면이 서지 않는 경우다. 해커의 중간경유지로 활용된다는 것 자체가 망신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 교수는 전공 관련하여 포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포천시 홈페이지 자문위원으로 활동 한 바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고 한다. 인터넷을 이용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요령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보보호를 위해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인터넷을 이용할 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 교수는 ID와 비밀번호를 정할 때 같은 번호를 쓰지 말 것과 전화번호, 차량번호, 주민등록



번호를 쓰는 것은 해커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일반사이트 ID와 비밀번호를 인터넷 뱅킹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일반 사이트 운영자들은 회원들의 ID와 비밀번호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정보를 요구하는 사이트에는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금융권에서 똑같이 사용하는 것도 위험하다. 해킹 당할 수 있다.

“盡人事待天命”을 평소 좌우명으로 삼아 생활하고 있는 신 교수는 1988년부터 1993년까지 LG소프트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요즘학생들은 어려운 일을 피해 가는 경향이 있다. 정면으로 승부하는 기질이 부족하다. 신 교수는 어려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크게 되기 위해서는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학생들에게 성취욕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주에 한번 교수대상회 회원들과 산에 가고 1주일에 한번 탁구경기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신 교수는 경북대학 학생과장, 교무과장으로 활동했으며 수학능력시험 예비평가 작업팀구 출제위원, EBS 교육방송 정보기술기초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신 교수는 경북대학에서 매년 정보기술대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공모전을 올해

로 9회 째 실시하고 있다. 서울북부지역과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신 교수는 앞으로 다가올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대책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포천신문이 포천의 역사, 전설, 유적지, 관광지 등 재미있고 읽을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보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유적답사기와 같은 글을 연재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보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신 교수가 그동안 발표한 주요논문과 저서는 다음과 같다.

- ▶Star-Wired Ring형 근거리 통신망 구현에 관한 연구(한국정보과학회, 1987)▶A Study on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Token Ring LAN End-to-End Transmission(JC-NSS, 1988)▶무선 LAN에서 변형된 PRMA와 TDD방식을 이용한 매체 접근 제어(한국정보과학회, 1993)▶ATM망에서 두 개의 임계값을 갖는 PBS기법에 관한 연구(한국통신학회, 1994)▶개선된 CDMA 인증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한국정보처리응용학회, 1994)▶셀룰라 모델 특성에 관한 연구(한국정보과학회, 1995)▶PC통신망에서의 인증에 관한 연구(한국정보과학회, 1996)▶ATM 망에서의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한국정보처리학회, 1997)▶인터넷 메일시스템의 정보보호서비스 구현(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 1997)▶A Study for providing confidentiality in ATM(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 1997)▶ATM 방식의 고속 통신망에서 비밀성 보장을 위한 구조와 암호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한국통신학회, 1998)▶ATM 방식 초고속 통신망에서의 정보보호 모델(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Analysis of the hybrid HOL/PBS queueing scheme for multiclass calls in multimedia PCS(IEEE, 1999)▶필수 컴퓨터(학문사, 1994)▶정보사회를 위한 필수 컴퓨터(학문사, 1997)▶C 프로그래밍(세운출판사, 1996)▶사무정보기기 응용기사 2급(정보문화사, 1996)▶전산정보 이론과 실무(대학교육문화원, 1998)▶워드프로세서(대학교육문화원, 1999)▶정보처리산업기사(고시연구원, 2000)▶컴퓨터활용과 실무(대학교육문화원, 2001)▶정보기술기초(대한교과서, 2002)▶컴퓨터 개론(ITC, 2007)▶엑셀과 파워포인트(ITC, 2007)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집중인터뷰 김성남 포천시의원

“리더 모임 만들어 현안문제 해결 모색”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지역갈등 조장



김성남 시의원(사진)은 포천사회가 구심점이 없는 원인으로 선거직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기초 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 후보 정당공천제를 시행함으로써 더욱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천지역사회가 구심점을 찾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통해 공직에 진출한 사람들이 사심을 버리고 정책협업체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성남 시의원과 의 일문일답 형식의 인터뷰 내용이다.

▶포천지역 사회의 특징은

포천시의 미래는 항상 밝다고 생각한다. 서울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통일시대 중앙이라는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과 시민, 시의원들이 하나로 뭉치면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을 미래지향적인 도시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들이 포천으로 유입된 것은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 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많이 들어왔다.

현재는 국내경기가 침체되어 포천지역 경기도 많이 침체되어 있다. 포천시 인구 가운데 20%가 농업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농민들의 소득은 증가하기는 커녕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관광농업 등의 자구책 마련과 포천시 차원에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포천지역의 배타성에 대해

옛날에는 배타성이 심했고 텃세 또한 심한 지역이었다. 현재는 포천인구가 15만명이 넘었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많다. 외지인들 기업인과 상인, 각종 단체 등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있다. 외지인 가운데는 포천사회 주류와 각종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외지인을 배타하는 일은 거의 없을뿐더러 포천포박이만 살 수는 없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시장에 대해 말이 많은데 국회의원은 시보다 국정을 논하는 직책이고 시장은 시 전체를 생각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다. 각각 역할이 달라서 그런 것이다. 국회의원은 포천과 연천이 된다 내려주려고 한다. 시장과 국회의원이 서로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이 뜸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포천사회에는 소지역주의가 만연했던 것은 사실이다. 포천교를 나와서 못치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각 지역학교들이 평등화되었다. 동남교가 명문화되고 있고 일동교에 투자도 많이 하고있다. 선거때 학연과 지역 등을 내세워 싸우는 것을 보면 아직도 소지역주의는 남아있는 것 같다.

▶포천사회가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포천사회가 구심점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은 선거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 조합장에 이르기까지 선거직이 너무 많다. 당선된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의견을 듣지 않는다. 우리지역 원로를 주축으로 정책협업체를 구성해 왔다면 선거직들이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선거직들이 합심해서 구심점을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과 다음 선거를 의식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선거직들은 사심을 버리고 구심점, 즉 정책협업체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신망을 받는 사람, 즉 관직출신인든 혹은 시의원, 도의원, 시장, 국회의원 출신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 갈등원인과 해소방안이 있다면

선거때 학연이나 지역 등 지역적인 면과 포천의 남북문제 혹은 소지역주의 등이 갈등원인으로 일부 나타난다. 시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은 현실에 맞지 않을뿐더러 광역화함으로써 지역사회 갈등이 빚어진다. 시의원이나 시장은 정치적인 색채가 없기 때문에 정당보다는 인물위주로 선출해야 한다. 시민들간의 갈등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다만 자기 삶의 문제로 골프장 건설이나 한전송전선로 문제 등 지역사회에 교감아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갈등이 발생하곤 한다. 이같은 갈등이 발생하면 시에서 적절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갈등이러기 보다는 국회의원과 시장은 호출이 안 맞는다. 국회의원은 시에서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장은 중앙에서 시를 많이 행거워야 한다고 하는 생각의 차이일 뿐이라고 본다. 또 시와 시의회간에 개인 갈등을 내세워 갈등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포천지역의 현안문제와 해결방안은

포천지역의 첫 번째 현안문제는 지역경제가 너무 침체되었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생산활동이 위축되어 있고 장사는 안되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포천이 더 큰 영향을 받고있다. 포천시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많이 유치해 기업체와 상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두 번째는 교통문제다. 먹고살기 힘든데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상승과 물류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교통체증으로 인해 기업들이 포천으로 들어오기 싫어하고 각종 도로망 구축이 좋은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

이같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자고속도로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예산 부족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각종 도로망 구축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과 공무원들은 더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는 누구나 공감하는 교육문제다. 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국가와 포천시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인근 시군인 의정부나 동두천에서는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고 있지만 포천은 명문고 육성을 위해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중학교를 졸업한 후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명문고를 육성하는 것은 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해야 한다. 외국어고를 유치하든지 아니면 기존중학교를 명문고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존 학교들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오피니언 리더 역할은

포천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화합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화합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생긴다는 말이 된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 포천현안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같은 자구적인 모임을 통해 지역갈등을 연구하고 현안문제를 검토해 포천시에 자문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시 예산을 받으면 특정한 사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모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불법고액 개인과외 추방하여 올바른 교육정책에 앞장서자

◆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불법적이고 무자격자가 하는 과외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 의사·약사·변호사의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격도 없고, 검증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과외교습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 불법개인과외·불법방문과외·불법공부방 등 각종 형태의 불법개인과외가 범람하여 사교육비를 급증시키고 우리교육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 불법고액 개인과외·탈법과외로 인한 사교육비의 급증으로 내수경기를 침체시키고 나라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 자녀교육을 불법 과외에 맡겨서는 안됩니다!

-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증이 게시되지 않은 곳은 불법입니다)
- 등록자 1인 이외의 채용 강사 교습은 불법입니다. (교육청에 허가된 교습자 이외의 강사는 불법입니다)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를 학습자의 주거지, 교습자의 주거지로 한정합니다.
- 고액과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교습료의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불법·고액과외 신고처

- 경기도 교육청 ☎ 031-249-0287

- 포천 교육청 ☎ 031-530-0030

-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 031-234-1535

포천시 학원 연합회